

인도 고대 불교유적지, 개발로 몸살

안드라프라데시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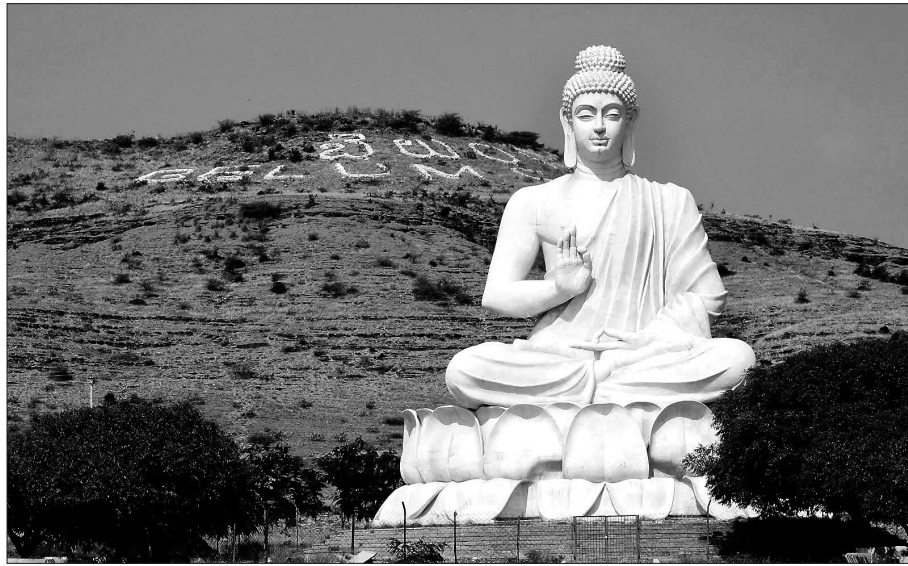
2천년 불교유적 사라질 위기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불교 유적지들이 주정부의 산업단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 관련 학계에서 '보존 계획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dia)〉지는 11월 7일 "대승불교의 사원이라고 불리는 안드라프라데시 주가 PCPIR 사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개발로 인근 불교 유적들이 파괴되고 있다"며 "관련 학계에서는 기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파괴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는 대승불교의 장을 열었던 용수 스님이 수행했던 '콘다의 언덕'이 있는 곳으로, 국내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간 이어져 내려온 불교유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인도 타임즈〉에 따르면, PCPIR의 석유화학 산업 단지는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에서 카키나다(Kakinada)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만 16~18개의 불교유적지가 있다.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에 있는 벨룸 동굴에는 많은 불교 유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불교 유적지 가운데 이미 12곳은 PCPIR의 개발로 위협 받고 있다"고 지목한 관련 학계는 "이중에서 코투루 디바루(Kothuru Dibalu), 보자나콘다(Bojannakonda), 파푸라라콘다(Pavuralakonda), 토트라콘다(Thotlakonda), 바비콘다(Baavikonda) 등 5곳은 주정부에서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 유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유적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레디(E Shivanagi Reddy,

안드라프라데시 주립미술관) 관장은 "산업단지 개발의 초기 작업인 '트렌치 굴착'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견되어, 개발을 잠시 멈추는 듯 하지만, 주정부는 이 지역을 '보존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고 있어, 향후 파괴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디 박사는 "이 지역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제하고 "당시 이 지역에서는 관광업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개발에 앞서 '유적 사전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주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개발의 목적인 바뀐 것뿐 아니라 PCPIR라는 다국적 석유화학기업이 들어와 이곳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 연방정부는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인도 석유화학 투자지역(PCPIR)은 면적 250km²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유수입관세 면제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그 지원도 전폭적이다.

인도 석유화학 생산 제품은 올레핀, 방향족, 합성섬유, 엘라스톰어 등이며 연간 15%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폴리머' 수요는 여전히 세계 기준보다 작지만 지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폴리머 소비에서 두드러진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았다. 지난 2008년 인도 석화산업 판매금액은 400억달러를 보였으며 정부는 2015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의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도 타임즈〉는 "인도 석유화학산업은 지난 40년 전과 비교해 큰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이는 결국 인도에 산재해 있는 고대 유적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지역민이 그리는 불교벽화, 문화재 훼손?

무스탕지역, 전문가와 지역민 함께 벽화 복원



툽첸 수도원에서 무스탕 지역민이 벽화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히말라야 해발 3800M 고원 지대에 위치한 무스탕, 티베트 문화가 살아있는 이곳은 14~17세기까지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8세기 네팔에 합병된 후 외부 방문이 금지되었고, 1950년대 중국의 티베트 점거에 맞서 티베트인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자 무스탕으로 이르는 통로는 모두 차단됐다.

외국인이 여행시 650달러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고 그마저도 한 해 1000명으로 제한된 은둔의 땅에서 14년째 머물고 있는 외국인인 있다. 이탈리아의 미술 복원 전문가인 루이지 피에니(39), 무스탕의 티베트 불교에 매혹된 그는 미국 히말라야재단의 지원을 받아 무스탕의 주요 수도원과 사원 벽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1999년부터 시작했다. 방치할 경우 30~40년 안에 모두 훼손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를 돕는 '견습생'들은 지역주민들이다. 종교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 생각에서 벽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복원해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35명의 주민들에

게 붓을 쥐어줬다. 물론 소정의 훈련 기간을 거쳤다.

돌마(Dolma)라는 주민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다. 섬세한 붓을 들고 종교 예술을 복원하는 작업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복원가는 기존 벽화를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역할이지만, 피에니는 지워진 부분을 기존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거나 스님들과 신도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채워넣었다. 그의 이러한 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의 불교 박물관인 루빈박물관의 크리스찬 루크차니츠 큐레이터의 말을 인용하며 "작업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 벽화 원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를 연구하려면 예전 문서와 사진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스탕 지역 스님들과 지역 지도자들은 피에니의 작업방식에 더없는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 **배현진 기자**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 수도원장 된 미국인 스님

브릴랜드 스님 이야기 다큐멘터리, 국제영화제 초청

미국인으로 최초로 티베트 불교 수도원장이 된 니콜라스 브릴랜드(Nicholas Vreeland) 스님. 2012년 서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인도에 있는 티베트 라토(Ratomonastery) 수도원장으로 지명됐다. 2천년이 넘는 티베트 불교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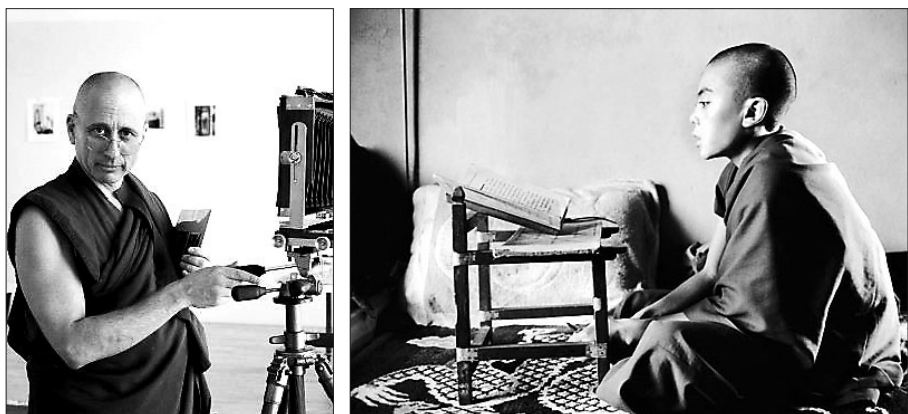
브릴랜드 스님은 몸담고 있던 라토 수도원이 위기에 처하자 카메라를 들고 티베트 스님과 불교문화를 담아낸 사진으로 전 세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자그마치 4억원 이상이 모였고 이는 스르려가던 티베트 수도원을 일으키고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는 데 쓰였다. 달라이 라마는 브릴랜드 스님에게 '카메라를 든 스님(monk with a camera)'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한때 미국 뉴욕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기도 했던 스님의 예술적 안목은 할머니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스님은 미국 유명 패션잡지 보그(Vogue) 편집장인 다이애나

브릴랜드의 손자다. 패션잡지가 처음 생길 무렵 뛰어난 감각으로 패션을 예술적인 경지에 올린 이로, 유명 디자이너들을 발굴해 낸 장본인이다. 지금은 타계했지만 아직도 패션업계에서는 전설적 인물로 남아 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에서 자란 스님은 브릴랜드 스님은 뉴욕에 티베트 센터를 세운 공라 린포체(Khyongla Rinpoche)를 만나기 전까지 화려한 삶을 살 줄 알았다. 불교를 접하고 평생 스승이 될 린포체를 만난 후 카메라가 도난당했다. 출가에 대한 암시로 비춰졌다.

드라마틱한 스님의 자전적 이야기가 '카메라를 든 스님(monk with a camera)'이라는 동명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이 작품은 26회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26th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IDFA) 비경쟁부문인 '리플렉션 이미지' 섹션에 초청됐



뉴욕에서 사진가로 활동했던 니콜라스 브릴랜드 스님(사진 왼쪽). 스님이 찍은 사진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판매돼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사진 오른쪽).

다.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IDFA는 다큐멘터리의 '칸 영화제'로 불리우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다.

매력적인 요소가 가득한 스님의 이야기지만 다큐멘터리는 이에 머물지 않았다. 카메라는 2년간 스님을 따라다니며 티베트 불교가 현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정체성을 보존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감독인 가이드 산티(Guido Santi)와 티

나 마스카라(Tina Mascara)는 다큐멘터리를 두고 "수도원에서의 삶과 티베트의 미래, 미국사회에서의 불교의 영향력, 참나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과 사진의 의미 등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12일간 열리는 영화제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총 5일간 상영된다. 상영작들은 1~7번 정도의 상영기회를 갖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데미 무어, '마음과 삶' 회의 참석

달라이 라마와 나란히 앉아...수행자 삶에 깊은 관심 보여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51)가 영성에 대해 언급하고, 인도 다람살라에 방문하는 동안 승가의 수행과 생활에 관심을 보였다. 〈타임즈 라이브(Times Live)〉지가 11월 7일 보도했다.

무어는 '마음과 삶(The Mind and Life)' 주제 회의에 참석해 달라이 라마와 나란히 앉아 티베트의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했다.

〈타임즈 라이브〉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주제로 한 토론자로 나선 무어는 그들의 삶이 일반인들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타임즈 라이브〉지는 무어의 말을 인용, "이번 회의에서 달라이 라마와의 깊은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가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감과 티베트 스님들의 자기 고백적 주제 발표 등에 힘입어 불자로서 특별한 무언가를 얻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한편 무어는 이번 회의에 이어 암리차르(Amritsar) 황금사원을 방문하는 인도 불교유적지를 방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삶은
꿈가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복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한글/영어)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독송)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